

지역상장사 상반기 매출↑ 순이익↓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11 사업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1개사에 대한 1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매출액은 1조3155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조657억원)보다 23.44%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35억원으로 전년(1005억원)보다 66.68%, 순이익은 195억원으로 전년(844억원)보다 76.93%로 각각 크게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민간소비 힘입어 신세계 275억 순익

보해양조 지난해 이어 또 적자 살림

활성화로 매출은 늘었지만 보해양조의 대손상각비(400억원)와 KPX화인케미칼(영업이익 237억→-26억)의 원재료 상승에 기인한 결과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대우에이텍(115.22%), 화천기공(62.72%), 로케트전기(47.86%), 대유신소재(43.05%), 조선내화(12.93%) 순이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곳은 화천기공(128.26%)이 선두였으며 로케트전기(21.

15%), 광주신세계(16.15%), 조선내화(13.72%), 디에스알제강(10.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가 2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11개사 중 9개사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KPX화인케미칼은 적자기업으로 돌아섰고, 보해양조는 지난해에 이어 적자 지속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1.97%포인트가 높아진 78.82%를

기록, 전국 평균(85.28%)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닥시장 8개사의 상반기 총 매출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8억원)보다 1.2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억원에 비해 줄었으나 적자가 지속됐으며 순이익 역시 -98억원으로 지난해 -72억원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6.63%p 증가한 54.47%를 기록했다. 8개사 가운데 와이엔텍(21억원) 등 3개사가 순이익 흑자, 5개사가 적자를 보였다. 흑전전환기업은 서산, 적자전환기업은 비엔비생원, 행남자기 등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우리금융 매각 또 무산 티스톤-보고펀드 불참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우리금융 예비입찰 마감결과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한 곳만이 예비입찰제 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우리금융 인수시사를 밝혔던 티스톤파트너스와 보고펀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 인수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유효경

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자위의 공식 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유효경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각작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티스톤파트너스와 보고펀드가 예비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은 투자자금 모집 부진 탓으로 알려졌다.

티스톤은 국내에서 70%, 외국에서

30%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추가 하락으로 국내 비중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보고펀드는 인수전에 함께 뛰어들 전략적 투자자(STI)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출범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지만,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지연됐다. 지난해 말에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유력한 후보였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입찰 불참 선언으로 정부가 매각작업을 중단했다.

정부는 2004년 9월 우리금융 자본 5.7%를 분산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6월 5%, 2009년 11월 7%, 올해 4월 9%를 매각해 현재 56.9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자위는 지난 5월

/연합뉴스

노각·깻잎·고추 썰어 된장 한스푼

물 붓고 얼음 동동 띄우면 갈증 싹~



다. 육수는 된장 한 스푼과 고추장 반 스푼,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한 고춧가루 반 스푼, 매실청 두 스푼, 참기름, 식초, 깨, 간마늘을 조금 넣고 버무린 후 물을 붓고 얼음을 띄우면 끝이다.

오이냉국 만드는 방법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된장을 풀어 간을 한다는 것인데 막 삼먹어보면 된장 맛은 크게 나지 않으면서 담백, 칼칼하다. 생된장과 고추장, 매실청에 들어 있는 ‘열에 약한 효소’와 영양분을 남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손님이 올리치면 양념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뒀다가 채소와 육수 모두 그릇에 담고 얼음만 올려 상에 내면 되니 인스턴트처럼 간편하다.

‘동온하청’(冬溫夏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모시라는 부모 공경의 덕을 말함이다. 사실 내가 무난히 밥해 먹고 살기까지는, 매일 세 가지 이상을 만들어 찬으로 올리던 외할머니의 정성 덕분이었다.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저 한 국에 밥 말아 놓고 살아생전 변변한 밥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함을 회한할 뿐이다. ‘동온’이고 ‘하청’이고 살아 계시지 않으니 이제라도 나누며 살아야 할 텐데. 부모님의 세월은 유한하겠지.

〈‘담양맥’의 열 두 달 실험’ 저자〉jazzchants@hanmail.net

박지현의
살림 레슨

■ 노각 물회

세한 비가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마당 한편 언덕 위에는 주렁주렁 오이가 열렸다. 내가 키우는 작물 중에서도 ‘Best 3’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토종 오이 ‘노각’이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No. 2’ 정도. 물론 Best 3 안에 드는 작물들은 모두 토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마늘쪽만큼 큰 토종 쪽파가 No. 1이요, 키는 작아도 그 모양새만으로 어린 날을 추억하게 하는 부추(술)가 세 번째다.

이중 여름철 내 밥상의 주·조연을 도맡고 있는 노각은 밥상에 냉기를 주고, 먹고 나면 갈증까지 가시는 게 이만한 효자가 없다. 사실 여름엔 볼 앞에 서있는 것도 고역이다. 그래서인지 따뜻한 국에 손가락이 선뜻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오이 몇 개 쓱쓱 썰고 고추장과 매실 엑기스, 식초 풀어 ‘매콤새콤’ 무치기도 하고, 잘 익은 된장 몇 숟갈 푹 때와 고추장 풀어 ‘된장 물회’ 만들어 밥 말아먹으면 등줄기에 흐르던 더위로 사라진다. 그럼 일반 오이와 무엇이 다를까. 노각은 90%가 수분이다. 여기에 비타민과 칼륨, 섬유질이 많아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채소다. ‘더위 먹었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데 신선대사를 활발하게 해 피로까지 풀어준다니 여름철 보약 같은 음식이다.

한 끼 식사 반찬으로 손색없는 ‘노각 물회’를 소개하자면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함은 물론이고 채소 약간 썰고 비늘대로 잘 썰기만 하면 되니 불 앞에서 동동거릴 일도 없다. 재료도 양파 반개와 노각, 깻잎, 고추가 전부다. 채소는 씻어 다듬고 먹고 싶은 크기대로 썰어둔

Yoon, Hyo-gan concert
윤 효 간 : 작 · 편곡가 겸 Pianist, Accordionist

MIR 미르치과병원 과 함께하는
감동과 꿈의 **윤효간 콘서트!**

1,000회 공연, 삶의 가치를 선물해주는 음악과 이야기!
수십만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는 사람들 삶의 롤모델!
청소년과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최고의 공연!

일 시 : 8월 19일 (금) 오후 7:00 ~
장 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강당
티켓문의 : 미르치과병원
• 상무점 : 062-600-2800
• 첨단점 : 062-970-9000

MIR MIR DENTAL HOSPITAL

호반건설, 주월동에 ‘힐하임’ 678가구 분양

호반건설이 광주시 남구 주월동 옛 대동고 부지에 ‘제석산 호반 힐하임’ 687가구를 분양한다.

호반 힐하임은 지하 3층, 지상 15~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25평형) 총 678가구와 복리시설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제석산을 단지과 연결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제석산의 구름다리와 정자, 운동시설이 단지 산책로와 곧바로

연결되고, 광주시내를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조망도 호반 힐하임의 프리미엄이다.

또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Bay)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방을 3개 또는 4개로 만들 수 있어 입주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광주 최고학군이라 불리는 주월중, 금당중, 문성중, 대

광여고, 대성여고, 문성고 등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 힐하임’은 자연과 함께 높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제석산의 조망권 고품격 주거생활을 실현한 호반건설의 새 브랜드”라며 “광주의 랜드마크, 조망권 프리미엄 아파트로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2-383-1000. /박정욱기자 jwppark@



17일 분양을 시작한 ‘제석산 호반 힐하임’ 모델하우스(광주 서구 쌍촌동)에 견본주택을 구경하려는 인파들이 크게 몰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험사기, 상반기에만 3만명

전년보다 31.5% 늘어…청소년·외국인까지 가담

보험사기가 급증해 상반기에만 3만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529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84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 인원은 31.5%, 금액은 1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를 조작한 허위사고가 1만106명(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차량을 바꾼 사해가 7732명(3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외제차 동호회는 정비업체, 렌터카업체와 짜고 일부러 30여차례 사고를 내 수리비 등

으로 6억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피해금액이 1082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장기손해보험 피해금액도 442억원에 달해 2년 전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

최근 보험사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과 외국인이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5천62명으로 지난해보다 19.6% 증가했다. 외국인도 164명이 13억원어치 보험사기를 저질러 인원은 74.5%, 금액은 165.2% 늘었다.

/연합뉴스